

ART REVIEW Photographer's work embraces life's transience

글. Cate McQuaid (Globe Correspondent) 12/5/2002

구본창이 촬영한 아버지의 사후 모습은 사진가로서 그의 미의식을 대변한다. 비록 이 사진이 한국 사진가로는 처음 가진 미국에서의 회고전 <구본창 : 한국 사진의 걸작(Bohnchang Koo: Masterworks of Korean Photography)>(피바디 에섹스 미술관)을 통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비영속성과 내적 순례는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내제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구본창의 작품은 필멸성 즉,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 죽음을 보다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현재와 사후세계의 장막, 그리고 그 후에 점점 빈약해지는 공허한 미래를 느끼게 한다. 구본창은 오직 곧 닥쳐올 죽음에 반응하는 것들의 삶과 그 아름다움에 시선을 던진다. 그의 작업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틀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종교, 과학,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암시가 깃들여 있다.

1953년에 태어난 구본창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서울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회사원의 생활에 무의미함을 느꼈던 그는 1980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사진과 디자인을 공부했고 1985년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호주, 독일, 아이스랜드, 미국 등에서 전시회를 가지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사진가로 성장한 그는 이번 전시를 해 또 한번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의 회고전과 동시에 샌디에고 사진 미술관(Museum of Photographic Arts in San Diego)에서도 2003년 1월 12일까지 그의 개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구본창의 작품들 중 가장 서사적인 것은 <긴 오후의 미행(Clandestine Pursuit in the Long Afternoon)>시리즈(1985-1990)이다. 서울에서 촬영된 흑백 스냅 사진들이 주를 이루는 이 작품들은 그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의 서울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서울이 1988년 올림픽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감정을 실은 작품들을 만들었다. 권총집에 들어있는 총, 새장에 갇힌 물새, 깎이지 않은 열쇠들이 새겨진 벽면, 어떤 남자를 찍은 포스터 위로 전선이 늘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몽타주되어 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위협과 가능성의 리듬을 창조한다. <긴 오후의 미행> 시리즈는 뒤이은 그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마치 다른 작가가 촬영한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활기 넘치고 번잡하면서 분주한 서울의 모습들의 정신적 공허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이 작가의 작품이 실존주의적으로 도약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1993년의 <굿바이 파라다이스(Good-bye Paradise)>를 계기로 그의 작업은 과학, 그리고 그것의 왕성한 범주화 경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범주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를 고정시키고 통제하려 시도하는 수단이다. 이 시리즈에서 구본창은 두 가지 유형의 작업을 선보인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대상을 감광지 위에 놓아 만들어진 포토그램으로 어류와 조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표본 상자 속에 든 곤충의 사진들이다. 라이스 페이퍼(겔린지)에 인화된 곤충들의 사진은 핀으로 고정되었고, 곤충의 학명으로 제목이 붙여졌다. 이 작업에서 나비, 잠자리, 무당벌레는 두 번 생명을 빼앗기는 셈인데, 죽은 곤충의 박제가 아니라, 종이 위에 만들어진 이미지들이기 때문이다.

포토그램과 표본 상자 작업 모두 한 때 존재했던 것의 자취를 제시하면서, 이미 없어진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며, 소중히 여기는지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의 옷장을 치우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바로 구본창의 <굿바이 파라다이스> 전반에 흐르는 정서인 것이다.

1994년의 <태초에서(In the Beginning)>라는 제목의 매혹적인 남성 누드 흑백사진 시리즈는 실로 꿰매어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얼굴 앞에서 팔을 감싸 안으며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진들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는 관람객으로부터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와 <태초에서>라는 제목은 사진 속의 남자가 선택의 기로에서 눈을 가리고 두려워하는 아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구본창은 불교 문화권에서 성장했고 그의 작품들 중 몇몇은 직접적으로 창세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어느 쪽에도 귀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그의 신앙은 자신의 예술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1995년의 만들어진 시리즈의 <숨(Breath)>이란 제목은 명상을 가리키는 지도 모른다. <굿바이 파라다이스>처럼, 이 시리즈의 흑백 이미지들은 어느덧 지나가는 삶, 또는 이미 떠나버린 삶의 흔적을 포착하려 시도한다. 이미지는 단순하다. 손, 시침이 없는 낡은 휴대용 시계, 밀랍으로 칠해진 봉투 안에 잡힌 벌레, 비닐 포장 위를 덮은 흙. 이 작품들은 그의 작품들 중 가장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태초에서>의 사실적인 누드처럼 애달프다. 그리고 우리는 흙을 찍었던 <숨>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에서 다음 시리즈로 가는 시각적 정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눈 (Snow)>시리즈(2001)에서 눈은 돌맹이나 잔디밭처럼 서로 다른 표면 위에 순백의 추상화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엄격한 형식이 존재하지만, 작가의 큰 주제는 바뀌지 않았다. 사진가 구본창은 눈이 곧 녹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이트 (White)> 시리즈는 세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는데, 그 이미지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하얗게 변한다. 이 작품들을 얼핏 보았을 때 사진에 찍힌 대상이 무엇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작품에 다가서서 자세히 살펴보면, 얼기 설기 엮여 있는 거미처럼 가늘고 긴 가지들이 나타나는데, 가지 여기 저기에는 나무의 눈(buds)이 달려 있다. 세 장의 사진에서 섬세한 잔가지들의 수는 줄어 들어서 거의 흰색만 보일 정도로 사라지고, 마지막 작품에서는 나뭇가지 가닥이 우아한 아치를 이루는 것만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을 주시하고 있노라면 마치 늦겨울 섬세한 나뭇가지들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세 이미지의 차이에서 보다 명쾌하고 순수한 것을 향하는 움직임을 읽게 된다. 그것은 순간을 찬미하며, 또한 죽음(해방, 보냄, 놓아줌letting go)에 보내는 찬사의 메시지이다.

죽음은 일생의 실천이면서도 신랄하고 가혹하기 그지없다. 관계의 전율, 상실의 공허함이며, 자유의 기쁨이다. 구본창은 이 모든 사랑과 죽음의 국면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가장 인도적이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술가 중 한 사람인 것이다.